

하늘

광주 안지초등학교

5-2 김은서

자동차 매연과 아무데나 버려진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른다.

고개를 돌려보니 놀이터엔 아이들이 없다. 공기가 나빠서 그런 것 같다.

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.

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마을이 조용하다.

아이들이 없으니 평소엔 쓸쓸하지 않던 내 마음도 쓸쓸하다.

그때 고개를 들어 무심코 하늘을 올려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.

하늘이 나를 찌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.

하늘은 나에게 “다 너희들 때문이야!”라고 말하고 있었다.

과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?

그건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할 평생의 숙제인 것 같다.